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난 7월1일

제3기 지방자치 출범이후

오늘 처음으로 열리게 된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기 민선시정의 정책방향과

시정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의 이 자리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의미있고 보람된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저는 지난 3년동안
초대 민선자치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18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보답코자
분골쇄신의 자세로
오로지 시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파주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반세기동안 누적되어온 많은 일들을
3년의 임기동안 모두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재정상의 한계나
법과 제도상의 제약들로 인해
아쉬움을 달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많았습시다만,
민선초기에 계획되었던 많은 일들이
대부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6.25 종전 이후 반세기동안

최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와 많은 제약을 받아옴으로써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파주가

신정부의 햇볕정책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남북교류와 통일의 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차 21세기 통일시대를 선도할 중심지역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몰리면서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포화상태의 수도권 개발열기가

우리 시로 봇물 터지듯 몰려오고 있어

부진했던 지역개발 사업들이

모처럼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나

내·외부 개발압력에 의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균형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설된 자유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의 생활반경을
30분 거리로 좁혀 놓았고,
통일대교 개통으로 남북교류의 통로를 확보했으며,
자유로와 통일로, 국도37호선도로 연결공사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파평, 적성지역 개발의 활로가 열리는 등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굵직굵직한 도로교통망 공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 전철·복선화사업,
교하 미니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할 대형기반사업들이
계획추진단계에 있어

우리 시민들께서 그토록 염원하던
지역발전의 변화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실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저는 시정에 대한 최대과제를

「으뜸파주 건설을 위한 백년대계 마련」과

「경제희생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 지난 3년간 기틀을 다져온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준비된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고자 합니다.

○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는 큰 일들이

목표한 바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공익우선의 희생정신이

○ 유감없이 발휘되어야만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주권을 의원여러분께 맡겨주셨고
막중한 시의 살림을 시장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어찌 한시라도 소임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7년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된지는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민들의 자치의식이나
의회나 집행부 모두 여러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공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공직자들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직자의
고정관념 파괴와 발상의 전환은 물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중견 공직자들이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고나 행태를 “나부터, 지금부터, 가능한 것부터”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금번 제3기 지방자치 출범을 계기로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큰 명제하에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무한경쟁의 냉엄한 국제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2~3만불 소득의 경제선진국 소비를 앞지르는
분수 넘치는 생활속에 빠져들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외환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고
경제주권을 잃게 된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크나큰 국가적 환난을
수도 없이 극복해 온 민족의 저력을 되살려
하루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 수출입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99억불이나 되고
외환보유고가 4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환율은 1달러당 1,200원대로 떨어지는 등
경제회생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11번째 경제부국이라는
허황된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을 바로보고
국민 한사람까지도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다가올 21세기는 정말 건실하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힘든 근세사를 돌이켜 보고
현실타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18만 시민과 함께 할
제2기 민선시정의 운영계획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제2기 민선시정에서는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 깨끗한 행정 실현과
시민들이 푸른 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인정 넘치는 밝은 사회 구현”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 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 ② 진실한 봉사로 믿음주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 ③ 21세기 파주발전의 백년대계 마련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 ④ 맑은물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 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면서
- ⑥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힘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經濟難 克服과 地域經濟 活性化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은
무엇보다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시의 잠재력을 찾아
경쟁력이 있는 자원으로 특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층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범시민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만남이 원활해지도록
인력은행,
노동자유시장을 개설해
상설운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전용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업운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건설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로
실직자 모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토종과 명품을 찾아서 특산화시키고
임진강 야생초 사료공장을 본격 가동하여
값싸고 질 좋은 사료를 자체 공급토록 함으로써
버려져 있는 자원을 활용한 외화절약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쌀, 인삼, 콩, 부추 등 널리 알려진 특산물의
품목별 축제행사를 통한 홍보로 판매를 촉진하고
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시(市)가 보증하는
「인증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함께 하나로 클럽을 통하여
과주농산물이 70%까지 직판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임진강 담수어, 사목 참외, 바이오폐지 등
고부가가치형 농·축·수산물의
산지 직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의 빼놓을 수 없는 소득자원인
관광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안보관광지와 역사의 현장을 연계하여
일일가족여행을 할 수 있는 안보·역사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감악산 운계폭포와 설마계곡을 개발해 나가며
파평면에 국제 태권도수련원을 건립할 것입니다.

● 또, 통일동산 주변에는
도립미술관, 드라이빈 극장, 민속촌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
보광사 주변에 관광휴양림을 조성하고
맥금온천단지 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 파주를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眞實한 奉仕로 믿음주는 市政 具現

진실한 봉사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이고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말합니다.

민선1기 시정에서는
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단계로
봉사행정의 수준을 끌어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시민들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공직자가 스스로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주민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시의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단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민원통합전산처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 3급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포럼 게시판을 통한 아이디어 은행과

파주발전기획단 운영 등

시민들이 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고,

시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완전공개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설치 및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둔 감사와

시스템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21世紀를 準備하는 活氣찬 地域開發

반세기동안의 휴면에서 깨어나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우리 파주를
조화와 균형속에
풍요로운 자족의 도시로 가꾸는 일은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21세기

전원·문화·관광·자족도시의 꿈이 담겨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년내에 완성하여
5대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살려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수직적 교통망에 의해
파주 동북부지역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나
국도 37호선을 자유로, 통일로와 연결하여
적성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 자유로 문발IC에서
금촌을 거쳐 나가는
동서횡단도로 개설공사도
곧 착공될 예정이어서
동서간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해 줄
간선도로, 우회도로, 지역간도로 등
19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와
오금, 내포, 사목리에서
자유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2002년까지 완전개통을 목표로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배후에 건설될
교하 미니신도시 건설사업과
금촌 택지개발,
문산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파평면의 금파지구와
조리면의 오산지방공단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개발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군사협의 문제에 있어
가급적 협의위임지역을 늘리고
관할 부대별로 사전분석도를 작성
군사협의를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시민들이 받아왔던 많은 불이익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맑은 물 保全과 快適한 環境가꾸기

앞으로의 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균형속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일에
큰 비중을 둘 것입니다.

우선, 인구 50만명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일 6만톤 규모의 현 파주상수도 공급능력을
25만톤 규모로 확장하는 한편,
경기북부광역상수도과 연계하여 먹는 물은 물론
산업용수까지도 넉넉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며,

곡능천, 문산천, 갈곡천 등
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공동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며

○
임진강 수계 5개시군의
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수질오염원을 철저히 색출해 나감으로써
임진강 수질을 항상 2급수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을
시민자율 감시기구에 맡겨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대행시켜 나가는 동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쓰레기 침단소각장 건설사업을 서둘러 착수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환경정책 방향은
공해규제 행정으로부터 환경창조 행정으로 전환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철저히 지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상급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는 구분을 지어
우리 힘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파주를

쾌적한 환경, 늘 푸른 전원도시로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파주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파주사랑운동」은

우리의 산과 들과 하천,

그리고 생활주변을

싱그럽고 생기가 넘치도록 가꾸며

시민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면서

늘 활기가 넘치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애향운동입니다.

「파주사랑 운동」을

시민자율실천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 「파주사랑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市民 福祉水準 向上

지방자치행정은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최고로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발전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특히,

독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별로 운영자금 소요액을 파악한 후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몇 년 후에는 활발한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시민단체 스스로의 창의력과 참여속에 개최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널리 관심을 끌고 있는 율곡문화제와 율곡서예대전 등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전국수준으로 격상시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 복지시설 면에서는

이미 건립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활작업장을 건립하는 한편,
신축중인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조기에 완공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금촌·문산·법원도서관 기능을 전산화하고
이동도서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교양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과주시를 수준높은 문화의 도시로 부각시켜 나갈 것입니다.

○ 체육진흥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1개소씩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여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체위향상에 힘쓰는 한편,
건설중인 공설운동장도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財 政 運 營 方 向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 살림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1차 추경을 전후하여
129억원의 세입결함이 나타나고 있어
부득이 어려운 경제사정이 개선될 때까지는
초긴축 예산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투자를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며
행사경비 등 일과성 경상경비의 지출을 축소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 소규모 숙원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생활주변의 작은 불편사항들이
빠짐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
공영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면적으로 위탁하는 한편,
상수도 누수수리반, 도로복구반,
생활민원기동봉사대 등의 대민봉사기능을
통합하거나
운영체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민자유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공단을 조성하고
공영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몇 년내로 시 재정자립도를
70%이상 끌어올리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이 빈약하고서는 아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긴 안목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수단은 아닙니다.

꾸준히 수입원을 개발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거시적으로 흔들림 없는
지역경제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사고로
21세기 으뜸과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일시적인 불만을 감수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설명드린 시 정책기조는
제2기 민선시정이 추구해야 할
확고한 목표이며
꼭 실현되어야 할
18만 시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또, 훌륭한 목표를 세워 놓는다 해도
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21세기 한반도 중심에 우뚝 선
파주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의 역량을 두배, 세배로 발휘해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의원 여러분이나 저는
파주시 번영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 7. 24.

파주시장 송 달 용